



즉시 배포용: 2020년 7월 14일

ANDREW M. CUOMO 주지사

## CUOMO 주지사, 나이아가라 폴스 주립공원의 웰컴 플라자 완공 발표

*프로스펙트 스트리트 입구 구역으로 다년간의 공원 풍경 복원 완료*

*플라자는 공원과 다운타운 비즈니스 지구 사이에서 사람을 맞이하는 연결구역 형성*

*발표가 진행된 오늘 행사의 사진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나이아가라 폴스(Niagara Falls) 내 프로스펙트 스트리트(Prospect Street)를 따라 새로운 나이아가라 폴스 주립공원(Niagara Falls State Park) 웰컴 플라자(Welcome Plaza) 작업이 완료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11년에 시작된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주립공원의 풍경 복원을 완료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아가라 폴스는 이 나라에서 가장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목적지 중 하나이며 뉴욕 환경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핵심 부분입니다. 이 활성화 계획의 완성은 지역의 관광 산업을 향상시키면서 이러한 유산을 강화합니다. 저는 모든 이들이 뉴욕주의 이 놀라운 공원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아가라 폴스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주립공원으로 풍부한 유산에서 비롯된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우리가 뉴욕주를 더 잘 복원함으로써 나이아가라 폴스 주립공원의 변화는 관광 산업과 경제 활동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웨스턴 뉴욕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세계의 경이로움 중 하나를 더 잘 보여줍니다."

62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완료하면 공원과 나이아가라 폭포 시 비즈니스 지구 간의 원활한 연결이 이루어지며, 이는 방문객이 공원 안팎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보행자 및 차량 안전을 개선하고 버스 도착 구역을 재설계하여 교통 혼잡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반 조경 업그레이드, 명확한 길 찾기 표지판, 균일한 공원 가구, 향상된 조명 및 향상된 보행자 순환을 통해 고객이 더욱 잘 공원을 즐기도록 합니다.

주립공원 커미셔너 **Erik Kulleseid**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주립공원은 우리 주립공원 시스템의 보석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방문하는 사람들은 최고를 즐길 자격이 있으며 이 프로젝트를 완료하면 바로 그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공원의 주인 역할을 하는 나이아가라 폴스 시와 중요한 연결을 만듭니다. 새로운 캐터랙 커먼즈(Cataract Commons)와 올드 폴스 스트리트(Old Falls Street)와 함께, 나이아가라 폴스는 이 도시가 일구는 탄탄한 관광 산업의 흥미로운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Robert Ortt**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아가라 폴스 주립공원 웰컴 플라자에서 완성된 보수 공사는 이 세계의 놀라운 경이로움을 두드러지게 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 주립공원이 우리 지역에 있어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주립공원과 그를 둘러싼 비즈니스 지역사회 사이의 연결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인상은 단 한 번만 남길 수 있으며, 공원의 웰컴 플라자에 대한 투자는 전 세계의 손님에게 평생 간직할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Angelo J. Morinello**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웰컴 플라자의 완성은 효과적으로 도시 내의 공원을 만듭니다. 주립공원은 너무나 오랫동안 나이아가라 폴스 시와 주립공원 사이에 시각적 장벽을 만드는 별도의 독립체처럼 보였습니다. Cuomo 주지사님과 뉴욕주 공원부(NYS Parks Department)의 비전과 나이아가라 폴스 관광객의 경험에 중요한 부분을 완료해 주신 데에 감사드립니다."

**Robert Restaino** 나이아가라 폴스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아가라 폴스 시는 긴 나이아가라 폴스 주립공원의 아름다움을 오랫동안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의 투자를 통해 우리 주 파트너들은 방문자가 더욱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프로스펙트 포인트(Prospect Point) 웰컴 플라자의 완성은 이 투자의 최고의 업적이며 시내 관광 지구의 흥미로운 발전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데스티네이션 나이아가라 유에스에이(Destination Niagara USA)의 **John Percy** 사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아가라 폴스 주립공원 웰컴 플라자의 완전한 변혁에 정말로 만족스럽습니다. 이제 더 개방적이고 매력적인 공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이아가라 폴스 시와 훨씬 더 강하게 연결되었습니다. 방문객들은 이제 공원 밖에서 우리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고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웰컴 플라자 프로젝트는 나이아가라 폴스 주립공원 경관에 대한 약 7,000만 달러 규모 활성화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011년에 시작된 나이아가라 폴스 주립공원 조경 활성화 계획(Niagara Falls State Park landscape revitalization plan)은 주립공원을 디자이너 Frederick Law Olmsted의 풍경에 대한 비전을 잘 반영하면서 여러 해에 걸쳐 개선하는 공약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루나 아일랜드(Luna Island), 프로스펙트 포인트, 로어 그로브(Lower Grove), 쓰리 시스터 아일랜드(Three Sisters Islands), 노스 쇼어라인 트레일(North Shoreline Trail), 루나 브리지(Luna Bridge), 테라핀 포인트(Terrapin Point)를 포함하는 공원의 주요 전망 지역에 새로운 보행자 산책로, 강화된 조경, 새로운 벤치 및 조명 기둥과 난관을 새로 교체하였습니다. 대화형 바람의 동굴(Cave of the Winds)은 나이아가라 폴스의 자연 및 문화적 역사를 조명하며 2017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나이아가라 폴스 주립공원은 뉴욕주와 미국의 보물입니다. 1885년에 세워진 이 공원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주립공원으로 매년 900만 명의 방문객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